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독일 통합학교 교장 초청 강연회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 탐색-

ㅁ 일 시 : 2015년6월2일(화) 15:00
ㅁ 장 소 : 서울시교육청 강당(11층)
ㅁ 주 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양대학교 SSK 소통과 오감학습연구팀
ㅁ 주 관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독일 통합학교(IGS) 교장 초청 강연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 탐색 -

일시 : 2015. 6. 2(화) 15:00~17:30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1층 강당

강사 : Wolfgang Vogelsaenger (독일 괴팅엔 통합학교 교장)

대상 : 중 · 고등학교 교원 /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독일의 괴팅엔 통합학교는 2011년 독일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소통과 협력의 학교 운영 철학과 모델이 외국에도 소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괴팅엔 통합학교의 **"책상그룹(Tischgruppen, 6명의 다양한 학생이 책상을 붙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제도)"** 사례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마당: 15:00 ~ 16:10 강연

독일 통합학교 사례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 탐색

둘째 마당: 16:10 ~ 17:30 포럼

질의 · 응답, 강연자와의 대화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양대 SSK 소통과 오감학습연구팀

주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강연회 일정표

	시간	내용	비고
	14:30 ~ 15:00	등록 및 자료집 배부	
첫째 마당	15:00 ~ 15:10	인사말 및 강연자 소개	사회자
	15:10 ~ 16:10	<강연> 독일 통합학교 사례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중·고교 교육과정 탐색	강연 : Wolfgang Vogelsaenger 통역 : 정진헌
둘째 마당	16:10 ~ 17:30	질의·응답 및 간담회	사회자

목 차

Ⅰ 강 연

1. 독일 괴팅엔 통합학교 개요(요약) 3
2. 독일 괴팅엔 통합학교 :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 9

Ⅱ 부 록

1. 독일의 교육제도와 중등단계 학교선발제도 25
2. 독일 학제와 괴팅엔 통합학교 27

첫째 마당 : 강 연

독일 괴팅엔 통합학교 사례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 탐색

강사 : Wolfgang Vogelsaenger
(괴팅엔 통합학교 교장)

독일 괴팅엔 통합학교 개요[1)]

볼프강 포겔생거[2)]

역 사

1970년대에 한 그룹의 정치가, 교사들, 부모들, 건축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독일 학교 제도의 명백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괴팅엔 대학교에 모였다. 독일의 학교 제도는 봉건제와 계급 사회의 역사적 부산물이며, 상당 부분은 지금도 그러하다. 초등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은 한 교실에 모여서 함께 배우지만, 우리의 10대들은 졸업 시점에 그들이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학문적 수준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세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학교에 진학한다. 이러한 구조는 일종의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했다. 학구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노동자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 이 시스템에서 더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괴팅엔 대학교에 모인 이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후기산업사회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조성, 팀 속에서 일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 세계의 타인들 및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교육, 새롭고 현대적인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 독일과 스웨덴을 여행한 결과, 197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2011년 로버트 보쉬 재단으로부터 독일 최고의 상을 수여받은 이 학교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아이디어

아이들을 사회 계급과 지적, 문화적 배경, 능력과 장애에 따라 구분한 학교 구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 학교에서의 학습은, 과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모에 의해서가 아닌, 아이들, 부모들, 선생님들 간의 협력의 산물이다.
-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은,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 없이, 개개인이 속한 팀의 자신감과 역량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은 배우고 생활하며,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관심의 중심에 있다.
- 학교에서는 문제에 기반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단절된 과목들 속에서의 학습이 이루어

1) 영어 번역 : 양희준(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 독일 괴팅엔 통합학교 교장, 괴팅엔 통합학교 홈페이지 http://www.igs-goe.de/home

지지 않는다.(예를 들면, '로마 공화국' 대신 '위기들'에 대해 공부하고, '나치즘' 대신 '독일의 정체성'에 대해 공부한다.)

- 학교에서는 팀 워크와 자기 관리, 실용적인 역량과 지식이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

개 념

-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3계통 학교 제도에 따라 학생들을 배정 받는다.
- 학생을 우리 지역의 인구 구성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섞는다.
- 거의 모든 종류의 재능들을 살린다. 지식, 음악, 연극, 춤, 써커스, 수공예, 여행 등이 포함된다.
- 6년 내에 유급은 없다.
- 첫 4년 동안 성적을 매기는 일은 없다. 대신에, 학생들은 지난 학기 대비 자신의 발전을 성찰하여 교사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편지를 작성한다. 두 종류의 편지는 부모들에게 배달되며, 상호 간에 토의된다.
- 교사들은 6년 동안 한 반을 가르친다.
- 두 교사가 한 학급을 책임진다.
- 교사들은 학생과 부모들을 개별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학급에서 많은 수업들을 한다.
- 30명의 학생들은 5개의 팀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팀은 과목별로 서로 다른 능력과 흥미를 가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다.
- 학생들은 팀별로 풀어야 할 과업과 도전을 부여받는다. 과업들은 팀의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여할 경우 이를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함께 디자인된다.
- 학생들은 수업에 임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참여할 수준을 결정한다.
- 학생들은 그러한 수준(모든 수준은 한 교실 안에 존재하며, 경로 간에 구분은 없다.)에 따라 6년이나 9년 뒤에 인증을 획득한다.
- 학생들의 70% 정도가 아비투어(종합대학 입학 허가)에 합격한다.
- 학생들이 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처럼 어른들도 팀에 소속되어 일한다.
-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시간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몸이 아픈 경우 보강을 계획할 수 있다. 교사들은 그들만의 예산을 운용한다.
- 교사들은 자기가 속한 팀 내에서 중요한 교육학적 이슈와 학교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한다.
- 교사와 한 팀에 속한 6명의 학생들은 석 달에 한 번씩 그들 부모들과 교육에 관한 토의를 하기 위해 만난다. 장소는 한 학생의 집이 된다.

사실들

- 공립 학교
- 170개의 지역에서 몰려든 350명의 아이들이 매년 등록
- 1,600명의 학생들, 200명의 어른들, 정신적으로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 모든 종류의 가족과 나라들에서 온 학생들
- 모든 국가 시험에서 매우 좋은 결과들
- 수천명의 방문객들
- 상이한 네트워크를 가진 구성원들
- 정부, 재단들, 그리고 대학들에 의해 수행된 학교 평가
-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많은 학교들의 청사진

향후 수년간의 전망

- 성적 등급을 매기지 않는 학교.
- 미래 사회를 위해 배워지고 가르쳐져야 할 것들에 대한 정의와 근거(중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2035년부터 2100년까지 살아갈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다.) 우리의 관점을 '어른'의 관점으로부터 '학생'의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다양한 전문가들의 팀(교사들, 심리학자들, 의사들, 장애아를 위한 전문가들)
- 더 이상의 일제식 시험은 없다.
- 실생활에서의 더 많은 프로젝트들

Introduction of Georg-Christoph-Lichtenberg-Gesamtschule Göttingen, Germany

Wolfgang Vogelsaenger

History

In 1970 a group of politicians, teachers, parents, architects and scientists came together at the University of Göttingen to find a solution for obvious flaws and problems of-German school system. This school system was and in its main parts still is a historical relict of feudalism and a society of social classes. While in Primary school all children learn together in one classroom, our 10-year-olds are sent to three different kinds of schools based on a prediction for the academic level they might reach at the end of school. This construction leads to an inequality: Children from academic families are proven to be much more successful in this system than children with a working class background.

The group decided to plan a school for the future which is fair and which opens chances for all children and prepares them for a future life in a diverse society. For a society of postindustrialism in which you need people with unique ideas, with creativity and with the ability to work in teams. For a respect for all the other people of the world, for nature and environment.

They traveled around Germany and Sweden in search for ideas for a good and modern school and developed a concept, which we've now been practicing since 1975 and for which we received the German school award of the Robert-Bosch-Foundation as the best school in Germany in 2011.

The idea

Construction of a school, in which the separation of children according to social classes, intellect, cultural background, abilities and disabilities is overcome.

A school

- Where learning is a matter of cooperation between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not of the parents ability to pay private lessons.
- With a lean-management, based on the confidence and competence of teams, for children and adults in the same way.
- Where children and adults can learn and live and in which the individual child is in the center of attention .

- Where you work on problems, not in separated subjects (for example: crises instead of the Roman Republic; German Identity instead of Nationalsozialismus (Nazism)).
- Where teamwork, self-management, practical competences and knowledge have the same importance.

The concept

- We take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children in the classical 3-line-school system in our region.
- We combine them to have a representative group according to our region.
- We live a school for nearly all talents: knowledge, music, theatre, dancing, circus, handicraft, travelling,
- No stay downs within the first 6 years.
- No marks for the first 4 years. Instead students reflect their development within the last semester in a letter to the teacher. The teachers reflect the student's development in a letter of their own. Both versions are delivered to the parents and are discussed between the three parties.
- Teachers tutor their classes for 6 years.
- Two teachers are equally responsible for one class.
- They teach many lessons in their class to really know each of their students and the parents.
- The 30 students of a class work in 5 teams 3 girls and 3 boys per table, with different abilities and interests in different subjects..
- They get tasks and challenges to solve in their team. Those tasks are designed in a way that the group has a common goal which can be reached if everybody contributes according to his or her abilities.
- Students decide in each part of the lessons, on which level they want to work.
- According to those levels (all in one classroom, no separation in courses) they get their certificates after 6 or 9 years
- Around 70% of our children pass the German Abitur which enables them to study at a university.
- Like the students work in teams, all the adults work in teams as well.
- The teachers can influence their timetables within their teams, they organize the substitutions in case of illness, they have their own budget.
- They hold regular meetings in their teams to discuss important pedagogical or institutional matters.
- The tutors and the 6 members of a tablegroup meet with their parents for an educational discussion every 3 months in one student's private home.

The facts

- Public school
- Every year registration of about 350 children for 170 places
- 1600 students, 200 adults, a diversity of children (with mental or other disabilities), students from all kind of families and countries
- Very good results in all national tests
- Visited by thousands of visitors
- Member of different networks
- Evaluated by government, foundations and university
- Blueprint for many other schools in Germany, Austria or the Netherlands

Perspectives for the next years

- No marks at all in school
- Definition of what has to be learned and teached for the future society and why it has to be teached and learned (important is the requirement on knowledge of the children for the years 2035 til 2100 and not our idear of learning at School. Our generation is nötig so successful in making a better world. We must change the view from our view as adults to the view from the children.
- Multiprofessional teams (teachers, psychologues, physicians, Specialist for disabled children.....)
- No more central examinations
- More projects in real life

This is a summary of the presentation in English. See attached a German text for more details.

독일 괴팅엔 통합종합학교(IGS)[3]

- 소통과 협력의 교육과정[4] -

1 경과보고 및 전망

"어떤 학생도 탈락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학교의 설립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75년부터 2002년까지 학교장을 지냈던 페터 브라머(Peter Brammer)는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개교준비팀의 활동 근거와 목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종합학교 워크숍'을 결성하기 위하여 1970년 3월에 괴팅엔의 학교 및 대학에 재직 중인 16명의 교사, 교수들이 사회경제학부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은 괴팅엔에서 두 개의 종합학교가 5학년 학생들을 받아들여 수업 운영을 시작하기까지에 5년이 걸릴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3) 역주 : 종합학교(Gesamtschule)는 독일의 전통적인 세 갈래 학교시스템의 학교들(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이 공간적, 조직적으로 하나가 된 학교형태로, 협력종합학교(KGS)와 통합종합학교(IGS)가 있다. 협력종합학교(KGS)는 세 유형의 학교가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교원의 교류, 수업 공동 개설 등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별도로 운영되는 형태이며, 통합종합학교(IGS)는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과정이 한 학급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괴팅엔 종합학교는 통합종합학교에 속한다.

4) 독어 번역 : 김일환(경기여고 교사), 오미자(서울고 교사), 강양현

다양하게 분화된 학교제도 속에서 상이한 형태의 학교들에서 꽤 긴 수업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긴 했지만, 하나의 **새로운 학교**라는 콘셉트를 개발하기 위한 자신만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기회 균등의 신장, 참여 기회의 확대, 과도하게 분화된 학교 시스템에 대한 대안의 모색, 모든 학생들에게 더욱 공정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다.

1970년대의 전반부는 니더작센 주에서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입안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활동 영역을 보장하던 시기, 창조성과 **새로운 사고**를 발산시켰던 시기였다.

우리는 하나의 학교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한 명의 교사로부터 기대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을 요구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매우 신속하게 일찍부터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설립계획을 수행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는 교육개혁적인 개념(콘셉트)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새로운 학교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팀 내부에서의 통합 능력, 달성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감지하는 정치적인 직관력과 아울러 다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의미한다.

'종합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모임의 구성원이 한때는 백 명을 넘어선 적도 있었다. 모든 유형의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 학부모, 지방자치 정치인들, 학술지원팀, 행정,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 종합학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우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접촉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개교준비팀은 독일과 스웨덴의 혁신학교들을 방문한 결과 하나의 안을 만들어냈고 이를 괴팅엔 지역의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소개하여 정치권에서는 '푸른 신호'를 받았으며 학교 경영진으로부터는 이러한 교육 콘셉트에 따라 학교 건물들을 구성, 배치해도 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앞으로 근무하게 될 선생님들 및 학부모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민대학 코스가 개설되었고 개교준비팀이 결성되었으며 1975년에는 학교의 운영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이질적 구성(Heterogenität), 소그룹 모델 팀, 클러스터학교, 전일제의 의무화, 교육의 개념 확장하기, 성적표 없애기, 학업성적에 따른 분반 수업의 중단, 참여 기회의 확대, 학생 · 학교 운영진 · 교사 · 학부모들의 역할의 변화 등 이러한 교육적 콘셉트의 기본적 특징들은 이미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이 학교의 질적 특성들이 계속해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교육적인 요구사항들이 법률적인 문구들에 우선한다고 보는 인식을 말한다. 주교육부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종합학교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분반 수업의 실시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새로운 학

교의 콘셉트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기에 개교준비팀은 자신들의 우수한 정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새로운 학교라는 콘셉트를 발전시키는 초기 단계에 이미 정계 인사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주교육부장관회의가 괴팅엔 종합학교를 독일 내 총 6개 학교가 포함된 "예외학교명단"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10학년 종료 시까지 학업성적에 따라 분반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정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수학교상 수상 모임", "담장 너머를 보자(Blick über den Zaun)[5]" 등등과 같은 네트워크 속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거듭 분명해지는 것은, 성공적인 교장들은 이러한 지시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그리고 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가라는 잣대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학교의 교장은 언제나 또한 '삐딱하게' 생각한다.

이들의 건물 배치계획은 이러한 학교 콘셉트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았기에 오늘날에 짓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거의 그대로 지을 것이다. 이들이 세운 학교설립 콘셉트와 건물배치계획들이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써 이미 당시 학교설립계획에 참여하고 결정을 내렸던 모든 분들은 열렬한 찬사를 받을 만하다.

'독일 위생상(衛生賞)'[6]및 '독일 학교상(學校賞)'[7]의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우리 학교의 기본 콘셉트가 지난 수십 년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보고했을 때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점이 이러한 우리의 콘셉트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냈다

처음에는 괴팅엔의 김나지움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로부터 '바보종합학교(IGS=Idiotengesamtschule)'라고 멸시 당하던 우리 학교는 오래전에 이미 이러한 평판을 넘어섰고 이제는 당당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 등록 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대부분의 다른 김나지움들보다 김나지움 자격 등록생 수가 더 많으며 하우프트슐레 진학 권고 및 특수교육대상 판정을 받은 아동들 중 거의 전원이 괴팅엔 통합형 종합학교에 등록한다) '단골손님'(대개 한 가족의 모든 자녀들 및 졸업생 자녀들이 괴팅엔 통합형 종합학교에 다닌다) 또한 매우 많다. 주정부 시행 통합아비투어(Zentralabitur) 등 모든 비교 고사에서 우리 학생들은 최상위권이며, 졸업생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또한 대학에서도

5) 역주 : 1989년에 결성된 학교 교육의 혁신을 지지하는 학교들의 모임. 학교의 내부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창하며 "시선(Blick)"을 "담장(Zaun)" 너머로 돌려 다른 학교들과 상호 방문, 협력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개선해 나아가자는 운동으로 다음 4가지 사항들을 그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1. „Dem Einzelnen gerecht werden(학생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인정함 2. „anderes Lernen(다르게 공부하기)": 새로운 학습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3. „Schule als Gemeinschaft(공동체로서의 학교)":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배우기 4. „Schule als lernende Institution(학습기관으로서의 학교)": 학교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함

6) 역주 : Deutscher Präventionspreis. 2004년부터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모범적인 조처를 취한 독일의 학교 또는 시설에 대하여 독일보건부에서 매년 수여하는 상. IGS 괴팅엔 2010년 수상.

7) 역주 : Deutscher Schulpreis. 2006년부터 로베르트 보쉬 재단, 하이데호프 재단, 시사주간지 '슈테른' 및 독일공영방송 ARD가 공동으로 탁월한 교육적 실천을 보여준 학교에게 수여하는 상. IGS 괴팅엔 2011년 수상.

성공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다.

혼합교육은 성공적이며 이는 괴팅엔 학생들이 지닌 이질성(Heterogenität)에 매우 적합한 교육이다. 하우프트슐레 및 레알슐레 진학 권고를 받은 학생들 중 다수가 더 높은 등급의 졸업장을 받는다. 교사들이 학교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도 높은 편이어서 조기퇴직을 하거나 타 학교로 전근 지원[8]을 하는 교사들이 거의 없다. 정원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자식들을 입학시킬 수 없었던 학부모들의 압력이 너무 커서 괴팅엔에서는 또 하나의 통합종합학교(IGS)가 2015/2016학년도에 문을 연다. 이 학교는 처음에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의 콘셉트에 따라 운영되지만 차츰 그 중점사항들을 달리할 것이며 우리 또한 이를 통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매주 하루씩을 프로젝트수업의 날로 배정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1975년에 우리와 함께 설립된 협력종합학교(KGS)는 2014년에 통합종합학교(IGS)로 변신하게 되며 이로써 괴팅엔 지역 내에 4번째의 통합형 종합학교가 생겨나게 된다. 앞으로 괴팅엔에는 오직 김나지움과 통합형 종합학교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트렌드일까?

우리 학교의 창설 팀들은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개발되어 수십 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온 콘셉트는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다. 훗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전국의 모든 주에서 정기적으로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의 콘셉트는 계속해서 호응을 받고 있다. 세대교체는 끝이 났으며 초창기의 창립 팀원들은 계획에 의하여 또는 정년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며, 의욕적이며 헌신적인 교사진들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는 많은 지원자들이 열광적으로 오도록 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20여 년 동안 우리는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사들 또한 우리 학교사회의 일원들이다. 2011년의 ‘독일 학교상’과 아울러 우리는 2010년에 ‘독일 위생상’을 받았으며, 이는 **학생을 학교의 중심에 놓고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본 콘셉트**에 대한 보상이었다. 다양한 운동 기회의 부여, 모범적인 학생식당 콘셉트, 중재학생제도, 버스 스카우트, 서커스, 사회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놀이센터, 책상그룹의 밤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한다.

걸림돌

여기서 우리의 성공담을 계속하는 대신에 이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학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8) 역주 : 독일은 학교교육인력 운영과 구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단위학교에 있다. 이에 각 학교가 학교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주 교육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교사를 채용한다. 채용된 교사는 주 교육부의 최종인가를 받아 주 교육부에 소속된다. 교사들은 거주지 이동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근하지 않고, 채용된 한 한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자신이 근무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될 수 없다.

-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학급 당 30명의 학생에 교사 1명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포어알베르크에서 우리는 24명의 학생을 두 명의 교사가 주당 10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며 운영하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의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아이들은 결코 단순해지지 않으며 그들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갖고 학교에 온다. 30명의 학생은 정말로 너무 많다.
- 통합수업이라는 목표는 특수교육 및 사회교육 전문요원들이 특수교육센터에서 단지 1~2시간 동안 학생들을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학교에서 직접 근무할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 특수학교 교사 양성의 본질적 요소들은 일반교사 양성의 모든 단계들 속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장애를 지닌 학생을 돌보는 것은 특수학교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진의 임무다.
- 특별 전공이 아니라 정규 전공으로서의 종합학교 교사 양성과정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이분법적인 발전경향이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직과정의 분리는 당연히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최근 니더작센 주 김나지움 교사들의 학급여행 거부 스트라이크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파업이 일어난 이유는 김나지움 교사들의 정규 수업 시수가 24.5 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는 종합학교에 근무하는 김나지움 교사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적용되던 시수이다.
- 교사 양성의 제 2단계는 학교의 현실을 더욱 강력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만 한다. 제 1단계가 전공과목 자체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듯이 제 2단계는 개별적인 수업시간의 운영을 그 중심에 놓아야만 한다. 수습교사들은 교육기간 동안 주당 24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우지 않는다. 이러한 태만은 결국 많은 초임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
- 평가 및 졸업 인증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오히려 학습 풍토와 수업 내용에 부당한 요소들이 개입되게 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성적은 학업 및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뿐이며 아울러 부당한 측면이 있다. 평가기관은 지원자들의 직업 및 대학 전공의 적합여부에 대해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그 어떠한 사회적 기회들도 놓쳐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은 오직 서비스영역으로만 그 업무를 제한해야만 한다. 그들이 학교에 충분한 교사진과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면서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면 학교들은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이며 학부모들도 학교에 협조할 것이다. 불신과 통제의 구조는 학교 현장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 크리스치안 불프가 니더작센 주지사를 하던 시절(2003~2010) 사민당은 종합학교의 수

업시수를 15% 감축하는 것에 대해 큰 소리로 반대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업교사확보율 100%(현재 수치)로 출발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이면 질병에 의한 수업결손율이 약 100 시간에 달한다. 우리는 의무수업시수의 5%를 커버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독립적인 대리수업규정을 필요로 한다. 계속해서 갑자기 대리 투입할 수 있는 교사진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 규정에 의해 대리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 학교가 지출하는 행정 비용이 더욱 증가했다. '독립 학교'라는 프로젝트에 의한 전환조처에 따라 별도의 보상도 없이 일부 교육지원업무들이 일선 학교로 이전되었다. 공무원 임용, 승진 및 수습교사들을 위한 판정업무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학교경영진과 교육부 간의 권한 다툼은 종결되어야만 한다.
- 기초자치단체 내의 학생 관련 업무 종사자 전원은 학교가 한계에 부딪쳤을 때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위하여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매주 모임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도대체 누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 학생을 담당하는 게 합당한가를 가려내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 우리는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문제들의 집합체가 전체 학급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각각의 학교 내에서 여러 직업군들에 걸친(multiprofessionell) 보조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교육적 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부족한 점 및 요구 사항들에 대한 이 리스트는 물론 아직 전혀 완벽한 것이 아니다. 아마도 모든 학교종사자들에게 명백한 것은 여기에 상술한 측면들이 훌륭한 학교가 되기 위한 주변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독일에는 많은 뛰어난 학교들이 존재한다. 그 학교들은 로베르트 보쉬 재단의 프로그램 내에서, 또는 '담장 너머 보기' 모임 내에서, 또는 여타의 우수한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그 학교들 모두는 각자의 프로그램을, 콘셉트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이들을 다른 학교들과 함께 한 무더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종합학교 공익연합, 교육학술노동조합(GEW) 또는 학교경영자연합 등과 같은 이익단체들이 일반적인 기본 조건들에 대하여 협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학교들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토론하면서 각각의 개별 학교들이 그들이 직면한 특별한 여건들 속에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낼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 정책분야에는 학생을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는 문화, 각종 지시들과 교칙을 훌륭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구조로 보는 그러한 문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약> 우리는 학생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학교로 보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훌륭한 학교를 만든다. 대개는 일반적인 학교정책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학교정책을 무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내재하는 많은 귀중한 힘들을 폭발시킨다. 우리 학교 4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신뢰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학습공동체

이 글은 "배우는 학교"에 대한 요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은 괴팅엔 통합종합학교가 실제 해온 일이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 있고 결정능력이 있는 팀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학습공동체들을 – 학생팀의 책상그룹과 교사로 이루어진 학년팀, 학교발전팀, 학교운영팀과 교과목팀과 "서비스" 영역의 교육학자팀, 행정실팀, 관리직원팀, 구내식당팀 등 – 전문적으로 만들고, 실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속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괴팅엔 통합종합학교는 1970년 푸른 초원 위의 제2세대 종합학교로 계획되었는데 기존의 3중 학제시스템에 대한 대응방안이었다. 계획수립단계 뿐 아니라 콘셉트를 실현하는 처음 몇 년간은 괴팅엔 대학교가 함께 일을 하였다.

유급과 전학, 외적인 학업성적 차이가 없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성적등급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내재적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 이 컨셉트는 40년 전부터 실행에 옮겨졌는데 2011년 독일학교상의 대상 수상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질적인 학습그룹을 다루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학습과정의 강력한 개별화와 학습공동체 내에서 이질성을 만드는 방안이다. 1975년부터 우리는 두 번째 방안을 택하고 있다. 두 방안이 전제하는 것은 아이들이 점점 강력히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인데, 첫 방안에서는 능력조견표와 진행일지가 도움이 되고 피드백 기능을 갖는 반면 두 번째 방안에서는 학습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써 똑같이 그러한 요구를 성취시킬 수 있어야한다. 어른인 우리가 같은 정도로 대치될 수 없는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반(反)생산적이며 어른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될지도 모른다.

아이 수준에서는 책상그룹이 학습공동체가 되며, 어른 수준에서 학습공동체는 학년팀,

교과팀, 학교운영팀과 학교발전, 구내식당, 행정실 등등이 팀이 된다. 모든 팀에 공통되는 사항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팀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팀 내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動機)가 조만간에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학교에서 마련된다면 지도(指導)는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 교사는 배움에 대한 책임을 점차 학습공동체에 넘겨주어야하는데 이는 다만 역할면에서 학교운영이 점차 자신들의 책임으로 넘겨지고 결정이 가능함을 교사들이 체험할 때만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풀어놓기, 신뢰, 피드백과 실수를 통해 배운 귀결이며, 학교 구성원들은 점차 주체로서 서로 마주치게 되고 서로를 대상으로 다루지 않게 된다.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학습공동체 중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여기에서 진술된 사항은 다른 모든 팀에게도 적용된다.

책상그룹은 복합적인 과제가 주어지는데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발표해야 한다. 그룹으로 그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나, 그들이 어떤 방도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들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룹의 개별 구성원이 할 일을 규정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도움을 주며 “회피하는” 아이와 함께 하고 안전을 제공한다. 그룹은 반년에서 1년까지 기간 동안 하나가 되어 고정되어 있게 된다. 문제는 회피되는게 아니라 해결되어야한다. 모든 과목에서 그들은 학습팀에서 공부하며 구성원들이 언제나 상이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40년 전부터 존재하는 책상그룹을 통해 학교의 전통이 확실히 이어지고 있다.

학년팀에는 170명 아이들의 6년간 학습과정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임무가 주어진다.

6년 후 자신들이 책임진 결과를 평가하는데, 초등학교의 권고를 졸업한 결과와 비교하며 부모와 함께 아이들의 6년간의 성장을 평가하게 된다. 학년팀의 임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오는 주제처럼 열려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도 열려있어야 한다. 개별 구성원의 약한 점과 능력에 따라 구성원이 맡는 부분이 언제나 새로이 정해져야 한다. 그룹은 6년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고, 문제는 위계질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팀내에서 해결되어야한다. 새로운 팀구성원은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구성원은 도움을 주어야한다. 팀은 수업시간표를 정하며 예산을 갖고, 대의원회의 규칙을 정하며, 모든 문제에 대한 첫 대화파트너가 된다. 동료가 새로 오게 되면 팀을 통해 학교의 전통에 익숙하게 되며, 아무도 회피될 수 없고, 누구나 이전에 배우지 않은 것을 배우게 된다.

학교발전팀은 학년운영부, 교과운영부, 학교운영진, 학생, 부모와 관심있는 사람 모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결정사항을 준비하여 격론이 없게 하는 복합적인 임무를 갖는다. 개별 그룹의 대표들이 현안 문제를 토론하며, 토론상황을 다시 학습공

동체로 가져가 토론하고 다시 그 토론상황을 학교운영팀의 다음 회의에 가져가게 된다. 의견 통일이 되어 모두가 받아들인 안건이 전체회의[9]에 제출될 때까지이다. 학교운영은 학교의 한정조건들(법률상의 변화, 사회적인 한정조건,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이 발전팀에 가져와 학교의 요구, 콘셉트와 비교하게 된다. 이 팀의 구성원 모두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 학교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무도 결정 전에 들은 적이 없다는 이의 제기가 없게 하는 것이다.

학교운영팀은 제도상의 6명과 교사진을 통한 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상주제와 전략적인 미래주제를 만들어 해당 협의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 자문을 하고 지원하게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당연히 교장이 총책임을 지며 이따금은 무엇을 결정해야하는 압박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는 재빨리 중단을 명령하고 전체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결정은 표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수 동의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 모든 결정의 뒤에는 팀 구성원 모두가 있어야하고, 교사진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대표해야 한다. 교직원에 의한 학교운영이 어느 날 새로온 교장이 자기 방식으로 학교를 완전히 바꿀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이다.

구내식당팀이 갖는 과제는 매일 1200인 분의 몸에 좋고 환경친화적이면서 저렴하고 그럼에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추가로 약 600인 분의 음식을 다른 학교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결정 폭은 넓어서 식단을 짜는 일, 구매, 할인, 인력채용과 아이들, 어른들, 공급자와 시청과의 소통에까지 이른다.

서비스팀은 행정직원, 조교, 사서를 포함한다. 복사하기, 인쇄하기, 인트라넷 기다리기, 아이패드 사용하기, 신청서 기입하기, 여행비용, 차표, 증명서, 학교행정 등 많은 일들이 모든 교사들을 위해 이 팀에 넘겨진다. 이때 대략 3명의 행정직원이 매우 개별적으로 늘 있지 않은 간단한 일을 해야 한다. 이들은 근무시간을 서로 조정하며 언제나 적어도 한 명은 자리에 있게 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맡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팀도 하나의 학습공동체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어 상호간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명 모두 이 그룹의 전체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이 팀은 많은 영역에서 처음에 학교운영팀과 합의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점차 독자적으로 행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사례들은 학교의 다른 모든 팀에게도 확장된다. 200명의 직원 중 팀에 속

9) 전체회의는 일년에 두 번만 열리는데, 보통 한 시간이 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안건이 더 이상 토론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 않고 책임을 지며 결정을 내리는 어른은 아무도 없다. 필자에게 이러한 점들은 학교가 실제로 배우는 장소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늘 새롭게 학교에 부여되는 "배워져야" 한다는 과제가 아니라 매시간 새로운 상황과 주제가 여러 학습공동체에 주어지는 일상이 중요하다. 학교의 학습과정을 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유도된 "유행하는 테마"가 아니고 일상적인 일에서 생겨나 의미가 있는 주제이다. 학교운영팀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과정을 코치하고 동반하는 일이다. 또한 학교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아이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게랄트 휘터(Gerald Hüther)에게서 시작된 생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상물로 보지 않고 주체 대 주체로 상호작용을 할 때 비로소 조직체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눈높이에서 그리고 존경심을 갖고. 이러한 기본태도가 모든 팀에 살아있고 새로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 부모, 직원들에게 전해질 때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더 좋게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태도가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3 우리는 소통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올해 우리 학교공동체는 로버트 보쉬 재단 및 하이데호프 재단이 수여하는 독일 학교상의 대상을 받았다. 이는 40년이 된 콘셉트에 대해 받은 상인데 그 콘셉트의 핵심은 **교육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의사소통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40년 전에 당시 학교 시스템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일군(一群)의 교사, 교육학자, 정치인, 학부모, 건축가들이 푸른 초원에 한 학교를 설계하기 위해 모였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올해 우리의 콘셉트에 대해 최고의 독일학교 상을 수상했다.

시각(視角)은 급격히 바뀌었다 : 과목, 교재, 지도안으로부터... 아이에게로. 아이들 각각을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과목을 중심에 놓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제 나는 시제를 현재형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당시 만들어진 구조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가를 발휘하며 또한 내가 오늘날의 상황을 서술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건 괴팅엔의 모든 아이들을 골고루 대표하는 집단이다. 영재부터 장애아까지. 우리 학교가 없었다면 아마 특수학교(Sonder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에 다니고 있을 아이들 말이다. 우리의 책상그룹에서 그들은 함께 앉아 있다. 훗날 직업에서 아주 중요할 소통이 이미 여기에서 생겨난다. 미래의 미장공이 미래의 건축가와 같은 팀에서 공부한다. 훗날 그들은 건축현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 집을 짓게 되면 분명 그들은 상호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주면서 교육할 수 있을까?

학습은 아이들과 교사가 평등하게 소통할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학습과정은 그 구조상 일방적이다 : 교사들이 내용과 요구수준을 정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하며 선별한다. 학습과정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학습이 항상 성공적일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과 요구수준 중에서의 선택을 대개 아이들이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상그룹에 있는 친구들이나 교사들과 대화하면서 한다. 8학년 중반에 작성되는 학습발달보고서는 개별 아이의 학습발달에 대한 상세한 서술 및 아이의 자기서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성적표의 공식적인 구성요소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아이의 발달을 전체적으로 관조할 수 있게 된다. 교장으로서 나는 학생들의 보고서들은 모두 읽는다. 학생들의 보고서는 개별 학생의, 학급의, 학년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며 종종 아이들이나 동료교사들과의 대화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6년이 모두에게 성공의 역사가 되도록 만드는가?

아이들은 10살부터 16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엄청난 발달을 하면서 많은 등락을 반복한다. 그들은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굉장한 요구들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또한 공부까지 해야만 한다. 학교가 이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는 그래야만 한다- 연속성, 신뢰 그리고 애정에 기반하며 시간을 들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보통 소수의 학급에서 많은 시수의, 많은 과목들을-전공이 아닌 과목까지도- 가르친다. 대개는 6년간 같은 학급을 맡는다. 소통과 발달은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적절히 투자해야 하며 아이의 필요와 희망에 알맞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서도 안 된다. 이 6년 동안 대화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담당 교사가 늘 2~3명은 있다.

학생이 아니라 아이를 보려면 전체적인 시도 속에서 어떤 관점과 과정들을 고려해하는가?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혹은 아이들을 고려할 때 분명한 사실은 인지적 영역으로만 축소시키는 건 아이들의 욕구나 인간의 다양한 면모에 비추어 온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인데 이는 체육, 음악, 미술 등 몇몇 비주요 과목들에서도 그러하다. 우리학교에서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는 있을 수 없다. 인지적 영

역에서는 물론이고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사진스튜디오, 많은 작업팀에서의 서커스, 기술수업, 요리, 연례행사인 수학여행 그리고 많은 다른 상황에서의 다양한 활동분야에서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서도 아이들, 부모들, 교사들, 사회교육학자들 그리고 학교 밖 인력들 간의 소통이 있게 된다. 이 다양한 활동들은 대화 속에서 개설되고 선별되고 돌보아진다. 평가나 상담 상황들에 있어서도 관련자 모두가 이 상황들 속에 동등하게 끌여 들여지기 때문에 아이들 발달의 모든 면들이 포괄된다.

발달 단계에 관여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소통상황으로 끌어들이는가?

아이들, 그들의 친구들, 부모들, 계부계모들, 형제자매들, 의사, 가정 및 학습치료사, 가족도우미, 직업상담사, 기업과 대학, 경찰, 간단히 말해서 사회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발달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는다. 소통구조의 가능성이나 필연성 없이는 성공적인 발달단계가 있기 힘들다. 우리의 학교 콘셉트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소통을 제공하며 부분적으로는 또한 이 소통을 강요하기도 한다.

중등 I 과정 (역주: 기술계 중등학교의 5~9학년 및 상업계 및 인문계 중등학교의 5~10학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학습팀으로 공부한다. 즉 남녀 혼성이며 성적우수자와 성적부진아가 섞여 있는 우리 책상그룹에서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습방법에 대해 소통하는데 이 학습방법들은 서로 다른 개별적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공동의 결과를 항상 목표로 한다. 그들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책상그룹으로 작업한다. 교사들의 팀방은 자신들이 맡은 학년 아이들 근처에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늘 아이들 곁에 있게 되고 격려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늘 거기에 있으므로 감독이란 필요치 않다.

한 학급의 교사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팀방에 있는 자신들의 책상그룹에서 보낸다. 다른 팀과 함께 공동으로 시간표를 짜고 대리나 감독을 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팀들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할 때만 성공적으로 일하게 된다. 소통의 의미와 목표는 그들의 학급과 학년의 학습 및 생활 상황을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것에 있다. 1년에 네 차례 두 교사는 책상그룹의 여섯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어느 한 부모 집에서 만난다. 교사들은 손님이고 그 집의 아이가 호스트가 된다. 아이들은 지난 4분기에 어느 한 과목에서 작업한 것을 소개하고 교사들은 책상그룹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며 부모들은

질문하고 비판하고 격려도 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놀러 가고 어른들끼리 남아 있다가 두 시간 정도 후에 교사들은 떠나고 부모와 아이들만 조금 더 머무른다. 소통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계층 간에 이루어진다. 모두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공동의 책임이 있고 상대방을 제치거나 또는 상대방에 처지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중심에 있다는 것, 남들이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 모든 아이들 개개인이 중요하기에 부모와 학교가 함께 작업한다는 것을 느낀다.

직업상담사, 경찰, 재계나 대학으로부터의 협력파트너, 대학생, 가족상담사 등등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오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학교 운영진인 우리들과 학교 전체가 모든 파트너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우리 학교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사회에 속해 있고 그 일부이다. 그 사실은 처음엔 많은 파트너들을 놀라게 하는데 이는 마치 새 동료교사나 학생이 교장비서실에 수줍어하며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어디어디로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가 이 학교는 그들의 학교이니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나의 대답에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국제적인 학교네트워크에서 "담장 너머 보기" 모임 내에서, 괴팅엔 교육지구 내에서 소통한다.

이 소통이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장되려면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교사들과 아이들과 부모들은 책상그룹, 학년팀 그리고 책상그룹 저녁모임 등의 구조를 통해 우리 학교콘셉트의 소통구조로 "빨려 들어온다". 자신들이 이 기본구조들을 함께 지고 가리라는 사실을 학생들은 등록할 때 서명하고 교사들은 고용될 때 확인하는 것이다. 이 팀 협업이 명색만 그룹작업인 것은 아니다. 소통은 열려있고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또한 교내에선 일반적으로 친밀한 어법[10]으로 소통한다.

팀들은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능력발휘를 한다. 책상그룹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학습에 있어서 전문가이고 교사팀들은 자기 학년의 학습조건에 있어서 전문가이며 학교운영팀은 학교 전체의 작업조건에서의 전문가이고 비서팀, 관리인팀, 사회교육학자팀, 학교식당팀, 그리고 업무보조인팀은 각각 그들의 영역에서 전문가이다. 이 매우 독립적이고 자

10) 역주 : 독일어에서는 친밀한 상대에게 쓰는 어법과 예의를 갖춰야 할 상대에게 쓰는 어법이 다름

기책임적인 모든 팀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짜내어 하나의 소통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학급에서의 교사시간, 14일간 계속되는 학년팀 회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학년부장들과 전체 학교운영진 간의 주례 회동, 교사배정을 결정하는 수업배당회의, 예산회의 및 교육학적-교수법적 회의 등이 그것인데 이 교육학적-교수법적 회의는 학년부장 및 교과부장, 학교운영진, 부모 및 학생들이 모여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토의하고 각자의 팀으로 갖고 가서 토론하며 거기서 나온 결과를 다시 이 회의로 가져오게 된다. 전체회의는 단지 교내에서 광범위하게 토의된 의제들을 표결에 부쳐 지루한 토론 없이 항상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다. 전체 회의는 일 년에 단 두 차례 그것도 항상 길어야 한 시간 동안 열린다. 학교이사회의 설립은 처음엔 이 세분화된 소통 및 결정구조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학교이사회를 현존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서 주로 비전이나 학교의 미래에 대한 토의 등을 관장하게 했다.

이렇게 정제된 소통구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제된 소통구조가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팀회의, 책상그룹 저녁모임, 대화 및 행사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시간을 매이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 집의 책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신경소모와 좌절을 줄여주는 데, 그 이유는 공동의 작업과 공동 책임을 통해 작업, 실수, 그리고 고립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취는 어떤 비교도 버티어 낼 수 있을 만하고 학생들은 인생에의 준비를 갖추게 되며 자아의식 및 팀 능력이 생긴다. 교사들은 대개 정년퇴직 때까지 혹은 그 이상 일한다. 부모들은 성적우수자들 뿐만 아니라 아주 부진한 아이들까지 모두 우리에게 보낸다. 학교일상은 긴장되지 않고 금요일 15시 35분에서 16시 사이에 학교가 파하면 학생들은 스트레스도 좌절감도 없다. 혹여 스트레스나 좌절감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의 모든 문들이 항상 열려 있다. 우리가 독일 학교대상을 받은 것은 그것 때문이기도 하다.

부 록

1. 독일의 교육제도와 중등단계 학생선발제도
2. 독일 학제와 괴팅엔 통합학교

참고자료 1

독일의 교육제도와 중등단계 학생선발제도[11)]

독일은 4년간의 초등교육이 끝난 후 상이한 유형의 학교로 진학하는 복선형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학교의 종류와 아울러 진학의 경로 또한 복잡한데, 이는 독일의 교육제도가 독특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교육제도는 학제에 따라 구분할 경우 학령 전 교육(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독일 학제를 볼 때 그 특징으로서 중등 교육 부분에서 세 방향으로 분화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학제는 유치원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교육은 크게 두 단계로 분류 되는데, 1단계는 하우푸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종합학교(Gesamtchule)등을 포함하며, 2단계는 김나지움의 상급반,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받는 직업교육 등이 해당된다. 이렇듯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진로가 세 방향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대학에 진학할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우프트슐레(주요학교)에는 초등학교 수료자 중 50% 정도가 진학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나타낸 학생은 다른 형태의 학교에 7학년으로 진학할 수가 있다. 또한 7학년에 재학하는 전체학생의 1/3가량이 주요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레알슐레(실과학교)는 초등학교 수료자중 20% 정도가 진학하고 주로 추천에 의해서 입학이 된다. 여기도 6학년말에 김나지움 7학년 또는 주요학교(하우프트슐레) 7학년으로의 전학이 가능하다. 실과학교 10학년을 졸업하면 전문고등학교 입학자격증이 주어지고, 전문고등학교 입학자격과 자질인정서를 받으면 김나지움 상급반 11학년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김나지움으로의 진학은 초등학교의 학력과 4학년 말에 실시되는 각종 시험의 결과에 따라 담임교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입학시험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김나지움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는데, 각각 6학년말, 10학년 말에 가능하다. 또, 10학년 말에는 전문고등학교 입학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종합학교도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10학년을 이수하면 직업계 또는 전문고등학교 입학자격을 얻

11) 김운삼, '유럽의 교육제도 :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2008, 『유라시아연구』, 제5권 제1호, pp79 ~ 82

어 진학하거나 종합학교 11학년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중등학교 2단계인 김나지움 상급반은 일반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환 과정으로서 여겨지는데, 3년 과정일 때 아비투어(Abitur)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즉 13학년 말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최고 4년 안에 아비투어 시험 허가를 얻어야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표1> 2004/2005년 학교 종류별 중등영역의 일반계학교

학교 종류	학교 수
예비교육 단계와 관련 없는 유형	1,118
하우프트슐레	5,195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 과정을 모두 제공하는 학교	2,224
레알슐레	3,003
김나지움	3,120
종합학교	729
자유 발도르프 학교	180
총계	15,569

<표2> 2004/2005년 중등영역의 일반계 학교 학생 수

중등교육 Ⅰ 수준	인원
예비교육 단계와 관련 없는 유형	110,801
하우프트슐레	1,084,300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 과정을 모두 제공하는 학교	379,458
레알슐레	1,351,452
김나지움	1,702,399
종합학교	450,960
자유 발도르프 학교	37,423
중등교육 Ⅱ 수준	**인원**
김나지움	701,644
종합학교	71,834
자유 발도르프학교	13,430
총계	786,908

<출처>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Ⅲ, 독일』, 2008,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남도교육청, pp71 ~72

참고자료 2

독일학제와 괴팅엔 통합학교[12)]

1. 기존 독일의 3중 학제는, 구시대의 계급 계층 구조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국민들이 일단 초등교육 (그룬트슐레) 기간 4년 (현재 구 동독 지역은 6년제)을 마치고, 봉건 시대 귀족, 브루조아 시대의 자본가 및 인텔리층의 자녀들이 일찌감치 김나지움 거쳐 대학 교육까지 마치고 다시 그 계층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당연시 한 거라면, 그 아래 레알슐레는 기능직종 (회계, 은행, 사무직, 비서직, 등등)으로 갈 계층 혹은 성적 우수자의 경우 김나지움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서 대학 진학 준비, 그 아래 하우프트슐레는 기능 노동자나 농민 등의 직을 수행토록 일찌감치 갈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증가한 이주민들의 자녀들은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로 배정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2. 세 부류의 학교 중 어디를 가느냐는 우선 그룬트슐레 3~4학년 동안의 학업 성취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업 분야 중에서는 독일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1-2학년 동안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재미를 붙이는 데 중점을 둔다면, 3-4학년 동안에는 성적 자체가 이후 추천 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이 시기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법 압박감을 받는 경향이 있다. 뮌헨 지역은 선생님의 추천이 거의 절대적이며 번복이 어려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아무리 교사가 레알슐레를 추천했더라도, 김나지움에 지원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본 3중 학제는 오래된 계급 계층화를 재생산하는 교육 시스템인 셈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전통에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약 40여 년 전, 즉 1970년대에 교육 개혁자들이 스웨덴의 모델을 배워 정착시키기 시작한 학교 유형이 통합학교이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스웨덴이 서열화된 학제를 지양했듯이, 아이들의 미래가 일찌감치 서열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성향의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익히는 데 주요한 의의를 두는 학교 시스템이 바로 통합학교이다. 이 통합학교는, 그룬트슐레(초등학교) 3-4학년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학교 담임에 의해 김나지움을 추천받은 지원자들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1/3의 학생들은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를 추천받은 학생들이 선발되어 입학하게 된다.

4. 통합학교는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점점 더 젊은 학부모들, 특히 좀 더 개방

12) 정리 : 정진헌(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적이며 자유롭고 진보적인 학부모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중장기 교육 개혁 차원에서 다른 학교들도 통합학교화 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기존 서열화 의식에 따른 학교 서열화 인식이 잔존하고 있다. 지역의 인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는 김나지움들 안에서도 서열화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법, 신학, 철학, 수학 등의 전통 인문학과 기초 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하던 김나지움이 오랜 동안 가장 최상의 학교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응용과학 분야가 인기를 끌며, 과학에 더 중심에 두는 김나지움들이 인기를 끌거나, 외국어 능력 배양에 힘쓰는 김나지움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5. 통합학교 유형은, 전통적 학제 시스템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뭔가 그래도 엘리트 코스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괴팅엔 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본다면, 매년 통합학교 지원 학생 수가 실제 뽑히는 학생 수의 3배 정도를 웃돌고 있어,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자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규모도, 일반 김나지움보다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이는 다른 김나지움 교사들의 해석으로는, 결국 김나지움의 통합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의지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통합학교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학부모나 학생의 선호도, 그리고 지역 정부의 장려도가 증가하는 걸까?

6.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김나지움들이 5학년부터 학업을 중시하여, 시험 및 학습 성취도에 대한 점수식 평가를 하고 (우수 성적자는 게시판에 이름을 올리기도 함), 숙제도 많은 편인데 반해, 통합학교는, 성적이 아닌 학생별 평가서를 교사들이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배포한다. 숙제도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거의 모든 독일의 학교들은 금요일에는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통합학교는 10학년까지 각자의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할 시간을 준다. 10학년 말에 가서 대학 입학 준비를 할지, 아니면, 직장 학교(베루프스슐레)로 갈지를 정하게 된다. 괴팅엔 소재 통합학교의 경우, 처음 입학 때와 달리 80 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 임하게 되는 걸로 나타나며, 본인들이 선택한 이상, 11-12학년 동안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한다. 하여 대학 입시 전국 수석도 배출하고, 평균 성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7. 교과목의 다양성, 그리고 취미 생활의 다양성도 통합학교에서는 중요하다. 교과목은 독일어, 수학, 과학, 영어, 스포츠 등의 기본 이외에도 각종 만들기 실습, 실험, 원예 등 다양하며, 모든 아이들이 취미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연극, 영화, 밴드, 마술, 댄스 등등의 숱한 클럽 활동이 허용된다. 괴팅엔의 통합학교는 각 학년에 한 반이 오케스트라 반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주 1회 전체 연습과 주말에는 각자 그 악기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자체 연습하도록 한다.

8.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세 부류로 추천된 학생들이 함께 한 반을 구성함은 물론이요, 정신 및 신체 장애 학생들도 배정된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용 차량이 따로 있으나, 이 학생들도 일반 학급에 편성되고, 각 반마다 6인씩 1조로 구성된 그룹(Tischgruppe, 책상그룹, 6개 책상을 한데 모아서 학생들이 앉음. 반은 안 바뀌나 책상그룹은 1년마다 바뀜)에도 참여한다.

9. 괴팅엔 통합학교에서 가장 내세우는 시스템 중에 하나는, 위에 나온 책상그룹이다. 독일은 각 학교가 반이 정해지면 끝까지 그 반이 유지된다. 담임들도 5년간 그 반을 담당한다. 한 반 약 30명 학생을 주 담임과 보조 담임이 담당한다. 이 학생들은 매 학년 초기에, 새로운 책상그룹을 짜서 함께 앉는다. 그들에게는 그룹별로 할당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걸, 서로가 의논해서 이루어간다. 자연스레 그 안에서 주도하는 학생이 나오고, 각 자의 장기들을 발휘하여 프로젝트를 성사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책상그룹 6명은, 5학년, 즉 통합학교 첫 해의 경우, 입학 정원 비율을 고려하여, 3명의 김나지움 추천자, 2명의 레알슐레 추천자, 1명의 하우프트슐레 추천자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가 원래 어느 학교를 추천 받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알아서 밝히는 듯하다.

10. 괴팅엔 통합학교의 경우, 이 책상그룹은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교사들도 6인 1책상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실에 가서 보면 실제로 교사들의 책상들이 그룹별로 모아져 있고, 파티션이 되어 있지 않다. 일반 교직원들은 자기 업무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으나, 이들도 4-6인으로 구성된 어느 그룹엔가 반드시 속해 있다. 그리고, 그 그룹을 중심으로 일에 대해 의논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단위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11. 학교의 정책이나 방향 결정도 책상그룹이 제일 작은 단위로 움직여서 그게 모아지는 식의 절차식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교장이 지시한다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교장의 의견도 단위를 거쳐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교장이라 해도 그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교장은 소위 본인 포함 3인으로 구성된 교장단의 대표격이라서, 일단 자기 의견을 교장단에 내고, 그 교장단이 합의하면, 그 다음 교직원 대표들과의 논의체에 제출하고, 거기서 다시 각 책상그룹에 전달되어 의논하게 되고, 각 책상그룹에서 나온 찬반의 의견이나 다른 제안들이 위로 다시 모아져 최종 결정을 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장이 학생들의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해 7학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타블렛 pc를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의견을 낸 경우, 학부모들 회의까지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교장이 제안한 걸, 검토하기 위해 교사진에서 일단 1년여 가까이 시험 기간을 갖고, 긍정적이라 판단

되어 합의하고, 이에 학급별 학부모 (대부분의 구입 비용을 대야 하므로)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이 났다. 그리고는 컴퓨터 회사와 가격 협상하고, 지역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고 하는 등의 시간도 걸렸다. 반면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업 시간 내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교장단의 발의부터 학생들에게의 통보까지 2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한다.

12. 학교 생활이나 기타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일반 김나지움보다 월등히 잘 구비된 것으로 보인다. 괴팅엔 통합학교에는 총 6명의 풀타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다른 일반 김나지움에는 단 한 명만 배정되었다고 한다. 그 김나지움의 한 교사에 의하면, 자기 학교도 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펀드를 지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추가 고용을 못한 데 반해, 통합학교에는 6명이나 고용되었으니, 그만큼 통합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한다.

13. 학교 폭력이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독일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걸 매우 중대한 과오로 여긴다. 화를 내면 지는 셈이다. 폭력적 행위들은 용납하지 않는 편이나, 그렇다고 아이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일을 너무 크게 여기지는 않는다. 자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은 늘 있기 마련이라고 여기는 경향이다. 왕따 문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외국인 학생들, 특히 아직 소수에 불과한 동아시안(중국, 한국, 일본 등)계 학생들은 종종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왕따 경험도 있다. 문제는 독일 학교에서는 이러한 타민족에 대한 폄하나 따돌림을 인종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즘에 대한 반성을 한 터라, 이미 인종차별은 제도적으로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고, 또 그에 대한 개선 의지가 실천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즉, 인종 차별적 언행을 하는 학생이나 어른들을, 별로 질이 안 좋은 “개인”으로 타자화시키면서,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14. 이러한 일상의 인종 차별의 기본 바탕에는, 한국에도 익숙한 자문화중심주의가 있다. 독일 자문화중심주의의 핵심은, 언어 적응력이다. 독일에 있으니 독일어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언어 구사 능력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 된다. 암기식 수업이 거의 철저하게 금지된 학교 문화에서,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리를 펼쳐야 하는 행위는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 중심으로만 말을 해야 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한국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불이익을 당하기 쉬우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15. 통합학교가 기존 서열화된 독일 학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지난 40여

년간 동안 선호도를 증가시켰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다문화 감수성, 특히 독일 및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주의적 감각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미래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16. 그리고, 개인별 장기와 특성들이 계발되고, 하나의 활동도 각자의 그런 능력들이 서로 서로 발휘됨과 동시에 평등하게 존중되는 걸 지향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장단기적으로 서열화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즉, 책상 그룹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어느 순간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아보지 못하고 1년을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리더와 리더가 아닌 학생들의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고착화되는 걸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순기능적인지도 고찰해 봐야 한다. 교사들에 의해 리더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해보도록 유도하여, 숨은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구사해 볼만 한데, 그런 식의 교육법은 아직 생소하다. 즉, 독일의 교육 문화에서는 교사가 개인별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따라올 아이는 오고 못 오는 아이들은 그게 그 학생의 자질로 보는 경향도 아직 있는 듯하다. 여전히 계급 계층의 서열화라는 기존의 습관이 대안 교육 문화에도 잔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건 매우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이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축구 교실에서도 공격에 재능이 보이면 계속 공격수로만 배치한다거나, 골키퍼 하는 아이는 계속 골키퍼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식의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일찌감치 고정화시키려는 추세가 보인다. 이는 각기 다른 탤런트를 타고 났기에 그걸 일찌감치 알아보고 더욱 키우려고 하려는 식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변화와 변신 등에 대한 열망들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학교가, 서로 이미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그 다름을 확인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다름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 교육과정임을 고려하는 세심함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일 학교 체계

<table>
<tr><th>영역</th><th>나이</th><th>학년</th><th>구분</th><th colspan="6">학교 형태</th></tr>
<tr><td rowspan="5">기초영역</td><td>1</td><td></td><td rowspan="5">학령전교육</td><td colspan="6" rowspan="5">Kindergarten</td></tr>
<tr><td>2</td><td></td></tr>
<tr><td>3</td><td></td></tr>
<tr><td>4</td><td></td></tr>
<tr><td>5</td><td></td></tr>
<tr><td rowspan="4">1영역</td><td>6</td><td>1</td><td rowspan="4">초등교육</td><td colspan="6" rowspan="4">Grundschule</td></tr>
<tr><td>7</td><td>2</td></tr>
<tr><td>8</td><td>3</td></tr>
<tr><td>9</td><td>4</td></tr>
<tr><td rowspan="9">2영역</td><td>10</td><td>5</td><td rowspan="6">중등교육
1단계</td><td>김나지움
(Gymnasim)
: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td><td colspan="2">레알슐레
(Realschule)
: 실용교육에 초점을 두는 학교</td><td>하우프트슐레
(Hauptschule)
: 낮은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td><td colspan="2">종합학교
(Gesamtschule)</td></tr>
<tr><td>11</td><td>6</td></tr>
<tr><td>12</td><td>7</td></tr>
<tr><td>13</td><td>8</td></tr>
<tr><td>14</td><td>9</td></tr>
<tr><td>15</td><td>10</td></tr>
<tr><td>16</td><td>11</td><td rowspan="3">중등교육
2단계</td><td colspan="6" rowspan="3">김나지움 상급반, 다양한 유형의 직업교육학교 등</td></tr>
<tr><td>17</td><td>12</td></tr>
<tr><td>18</td><td>13</td></tr>
<tr><td rowspan="5">3영역</td><td>19</td><td></td><td rowspan="5">고등교육</td><td rowspan="5">University</td><td rowspan="5">College</td><td rowspan="5">Healthcare academy</td><td rowspan="5">Professional school</td><td rowspan="5">Labor market
Job seeking</td><td rowspan="5">Evening classes</td></tr>
<tr><td>20</td><td></td></tr>
<tr><td>21</td><td></td></tr>
<tr><td>22</td><td></td></tr>
<tr><td>23+</td><td></td></tr>
</table>

* 이 외에 각 단계별로 "Special needs school"이 있음